

냉전-분단 체제와 월남서사의 이동 문법*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와 임옥인의 『월남전후』를 중심으로

오 태 영**

요약

이 글에서는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와 임옥인의 『월남전후』를 대상으로 하여 월남서사 속 이동의 수행적 과정과 그러한 과정의 조건들로서 공간 재편 및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월남서사는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북에서 남으로 이동한 자들이 어떻게 남북한으로 분할된 이념 공간의 재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가, 즉 개인의 존재 가능성을 확보하는가와 함께 거기에 개입해 들어간 분단 체제의 통치성의 한 단면을 확인하게 한다. 이 글에서는 월남한 자의 자기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그들이 구축한 이동의 조건과 문법들이 갖는 의미와 함께 그것이 분단 체제하 냉전-반공 이데올로기와 결합되는 단초를 확인하였다. 월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38선 이북은 상실과 폐허의 공간으로 위치 지어지는 동시에 남성 젠더의 폭력성이 극대화되는 남성 동성사회적 욕망의 공간으로 구축된다. 해서 그곳은 월남한 자로 하여금 자기 존재의 근거를 송두리째 뿌리 뽑히고 내쫓기는 토포포비아의 공간이자, 추방된 자가 탈출을 감행하여 상실의 고통을 치유하고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이상향으로서 38선 이남을 상상하게 하는 동력을 작동시키는 디스토피아로서 제시된다.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와 임옥인의 『월남전후』는 한 개인의 월남의 과정이 서사화되어 제시되는 가운데 해방 직후 북조선의 정치경제적 조건들이 어떻게 가로놓여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 이념 공간의 분할 및 획정의 내러티브적 기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본 연구는 2019년 동국대학교 신입교원특별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자료 획득에 도움을 주신 연세대학교 임유경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인문콘텐츠학부 국어국문학전공 조교수

주제어: 냉전-분단 체제, 월남서사, 공간 재편, 이동, 상실, 반공 이데올로기

목차

1. 해방 이후 체제 변동과 이념 공간의 재편
2. 상실의 감각과 추방당하는 자의 문법
3. 남성 동성사회적 공간 재편과 토포포비아
4. 월남의 수행성과 반공서사의 이데올로기

1. 해방 이후 체제 변동과 이념 공간의 재편

1945년 8월 15일 제국 일본의 패전은 동아시아 지역의 공간 질서를 재편했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전시총동원 체제에 접어들었던 동아시아 지역은 ‘황도주의(皇道主義)’에 기초해 전체주의적 이념 공간(ideological space)으로 통합되었다. 물론 제국과 식민지, 식민지 지역들 간 차별적 구조를 갖는 위계화된 공간 질서가 작동하고 있었지만, 제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여 동심원적으로 확장해간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을 기치로 기존 서양 제국주의 세력의 개인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전체주의적 이념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인간 삶의 조건으로 제시되었으며, 일상의 생활공간(Lebensraum)은 제국주의적 질서 하 동원의 대상으로 재조직되었다. 그러던 것이 제국 일본의 패전과 함께 동아시아 식민지 국가 및 지역의 해방으로 민족을 단위로 하는 국민(민족)국가 건설이라는 내셔널리즘적 공간으로 재편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내셔널리즘의 자장 속에서는 제국주의적 질서 아래 억압되거나 은폐되었던 이념들이 해방과 동시에 표출되면서 다양한 이념 공간들이 생성되고 경합하기 시작했다.

해방 조선의 경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전체주의적 이념에 기초

한 대동아공영권 내 내선일체(內鮮一體) 이데올로기를 통해 여타 동아시아 지역과 달리 소위 병참기지로 위치 지어졌던 조선은 해방과 함께 민족 국가 건설을 서둘렀고, 민족성과 민족문화가 충만한 공간으로 한반도를 재편해갔다. 그에 따라 과거 제국-식민지 체제가 억압되었던 이념이 새롭게 분출되었는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을 전후해 ‘근대의 종언’과 함께 전체주의적 이념에 의해 좌절되었던 사회주의적 비전과 전망이 되살아나 표출되었다. 그리고 그에 더해 미소 양군의 38선 이남과 이북 지역으로의 진주 및 점령에 조응해 좌우익의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서 해방 조선은 반봉건, 반제국, 민주주의, 민족주의의 의장을 입은 다채로운 이념들이 넘쳐났다. 하지만 미소군정의 남북한 분할 통치와 뒤이은 1948년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그리고 38선 인근의 국지전에 이은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과 휴전을 거치면서 38선을 분할선으로 정치체(政治體)의 통치성이 강력한 구심력을 작동시켜 좌우익의 이념 공간을 획정하게 되었다.

근대 국민국가의 성립 이후 그것을 유지·존속하기 위한 체제(regime)가 인간을 통치의 대상으로 위치시키면서, 그러한 통치성이 발휘되는 법역(法域)을 구획하고 그 너머를 상상하거나 월경(越境)을 수행하는 존재를 붙은시하며 통제해왔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해방과 미소군정의 분할 통치,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 및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해 한반도가 적대적 이념에 의해 양분되고, 그곳을 살아가는 인간들로 하여금 적과 동지라는 양자택일의 공간 질서를 제시했을 때, 개인들의 선택은—그것이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대체로 생존을 위한 방편으로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나아가 어떤 하나의 선택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정을 수행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적대적 공생 관계 속에서는 단순히 체제 경쟁에서 우월한 위치를 점유하려는 욕망의 표출에 그치는 것이 아닌,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부정함으로써만 존재할 수 있는, 다시 말해 파괴와 소멸의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기도 했다. 기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없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없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는 이념 공간은 그 자체로 존립 근거를 상실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정치체는 상대방의 이념 공간을 무화(無化)하는 전략을 펼쳐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듯이, 단일한 정치체가 작동하는 이념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다양한 이념적 지향과 전망을 가지고 있는 개인과 집단이 존재했다. 이 ‘내적 외부자들’은 그래서 언제나 감시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자신들의 이념적 지향과 전망을 스스로 폐기하거나 부정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념적 지향과 전망이 언제나 삶의 조건으로 작동했던 것은 아니다. 좌우익의 이념 보다는 당장의 ‘먹고사는’ 문제가 해방과 분단, 전쟁과 폐허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힘을 발휘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그럼에도 스스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국가 권력일수록 그러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념을 잣대로 개인과 집단을 재단하고 국민 됨의 자격을 부여/박탈하였다. 남북한 분단 체제가 형성되어가는 과정 속에는 이처럼 끊임없이 감시와 처벌 속에서 자신의 이념을 표명하고, 배제되어 축출당하지 않기 위해 분투해야만 했던 개인과 집단들이 존재했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해 월남서사에 나타난 이동의 문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월남서사는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북에서 남으로 이동한 자들이 어떻게 남북한으로 분할된 이념 공간의 재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가, 즉 개인의 존재 가능성을 확보하는가와 함께 거기에 개입해 들어간 냉전-분단 체제의 통치성의 한 단면을 확인하게 한다. 해서 해방 이후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이루어진 인구의 이동이 이념 공간에 의해 어떻게 질서화되고 구조화되는가, 또한 이후 남북한 통치성에 의해 이동성이 어떻게 고착되어가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월남서사를 반공 이데올로기의 서사적 결과물—물론 이는 월남서사의 이데올로기적 효과이지만—이라고만 단정 짓는 것은

제한적이다. 이 글에서는 월남한 자의 자기 이야기(self-narratives)를 따라가면서 그들이 구축한 이동의 조건과 문법들이 갖는 의미와 함께 그것이 분단 체제하 냉전-반공 이데올로기와 결합되는 단초를 확인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그 명명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월남서사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문학사 서술에서 한국전쟁으로 인한 인구의 이동은 대체로 반공 이데올로기와 휴머니즘이라는 추상적 관념에 의해 의미화되었고,¹⁾ 월남서사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평가 받아왔다. 비교적 최근 연구들 중에서는 해방 이후 남한사회에서 월남 작가의 존재 방식과 그것이 텍스트에 발현되는 양상을 고찰하여 해방기 '재남조선 이복인'이라는 호명과 1948년 '망명자' 및 '비국민'으로 격하되었던 월남민들의 위상을 밝히거나,²⁾ 같은 맥락에서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남한사회에서 월남민이 임시 체류자 집단이자 국민국가의 일원이라는 이중적 위상을 갖게 된 정치적 상황에 주목해 월남 작가의 창작 행위가 내부자이자 동시에 외부인으로 존재했던 양상을 고찰한 논의³⁾가 있어 주목된다.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와 임옥인의 『월남 전후』를 논의한 연구 역시 쉽게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카인의 후예』와 관련해 김종옥은 황순원이 상상계 속에서 어머니와의 상상적 합일을 꿈꾸는 유아기적 상태에 놓여 있는 등장인물을 통해 역사성을 제거하면서 민족적 통합성에 대한 이념적 선택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전쟁으로 인해 확대·재생산된 내셔널리즘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다.⁴⁾ 이재용은 토지

1)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360면.

2) 전소영, 『해방 이후 '월남 작가의 존재 방식: 1945~1953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44집, 한국현대문학회, 2014, 383-419면.

3) 정주아, 『정치적 난민의 공간 감각, 월남작가와 월경의 체험』, 『한국근대문학연구』 제31호, 한국근대문학회, 2015, 39-63면.

4) 김종옥, 『희생의 순수성과 복수의 담론—황순원의 〈카인의 후예〉—』, 『현대소설연구』 제1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3, 267-291면.

개혁이라는 사건에 주목해 국가권력이 폭력적으로 사회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이분법적으로 구획하는데, 오작녀의 박훈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가 그러한 구획을 넘어 윤리적 주체성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논의하였다.⁵⁾ 노승욱은 황순원이 좌절된 귀환 욕망을 추동하기 위해 디아스포라의 심상지리를 그의 소설 속에서 구축하였다고 전제한 뒤, 향수의 근원지인 서북지역이 월남 실향민인 황순원의 이상적 원형 공간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⁶⁾ 우찬제는 황순원 소설에 나타난 ‘사회 상징적 나무의 상상력’에 주목하여 월남작가로서 황순원이 인간의 이기적 욕망이 살인으로 이어진 데 대해 진정한 사랑을 통해 살림으로 나아가는 ‘접목의 수사학’을 보여주고 있다고 논했다.⁷⁾ 한편, 『월남전후』와 관련해서 한경희는 임옥인 소설에서의 사랑이 혈연/성(性)과 구분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그것이 새로운 공동체 윤리로 확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논증하는 가운데 『월남전후』가 남한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이복 출신 작가의 자기 방어에 해당한다고 논의하였다.⁸⁾ 김주리는 월남 여성 지식인이라는 분열된 정체성이 가져오는 서사적 균열을 포착하는 것을 통해 『월남전후』에서 지식인 여성의 월남이 가족·친족의 경계에서 지식·야만의 경계로 이동하는 분열된 주체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혔다.⁹⁾ 서세림은 월남작가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고향’의 개념과 의미가 변용되는 양상을 중심으로 월남문학을 유형화하면서 이복이 고향으로서

5) 이재용, 「국가권력의 폭력성에 포획당한 윤리적 주체의 횡단·황순원의 『카인의 후에』론」, 『어문론집』 제58집, 중앙어문학회, 2014, 301-324면.

6) 노승욱, 「황순원 소설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의 지형도(地形圖)」, 『한국근대문학연구』 제31호, 한국근대문학학회, 2015, 121-158면.

7) 우찬제, 「황순원 소설에 나타난 뿌리의 심연과 접목의 수사학」, 『문학과환경』 제14권 제2호, 문학과환경학회, 2015, 125-142면.

8) 한경희, 「임옥인 소설에 나타나는 월남 체험의 서사화와 사랑의 문제」, 『춘원연구학보』 제7호, 춘원연구학회, 2014, 263-291면.

9) 김주리, 「월경(越境)과 반경(半徑)-임옥인의 〈월남전후〉에 대하여」, 『한국근대문학연구』 제31호, 한국근대문학학회, 2015, 91-119면.

그리움의 대상이자 동시에 순수성이 훼손된 곳으로 부정의 대상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음을 논의하였다.¹⁰⁾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월남서사는 대체로 체제 변동에 따른 남북한의 공간 구획과 이념 대립의 구도, 월남작가의 ‘자기의 테크놀로지’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왔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¹¹⁾와 임옥인의 『월남전후』¹²⁾를 대상으로 하여 월남서사 속 이동의 수행적 과정과 그러한 이동 과정의 조건들로서 공간 재편 및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작품 이외에도 해방 이후 남한문학에서 월남서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이 두 작품은 해방 직후 남북한 이념 공간의 재편 과정 속에서 비교적 초기에 월남한 자의 행위와 욕망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한국전쟁 발발 이후 서사화되어 텍스트로 생산되었다는 점에서 여타 월남서사와 차이를 갖는다. 다시 말해 한국전쟁의 발발과 함께 극심한 좌우익의 대립으로 인해 한반도가 이분법적 이념 공간으로 강고하게 구축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것의 발생 초기 월남한 자의 자기 서사를 통해 월남이라는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과 문법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즉, 월남이라는 한 개인의 이동이 서사화되어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해방 직후의 정치경제적 조건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냉전-분단 체제가 고착화되어가는 가운데 그러한 월남서사가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발휘하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10) 서세립, 『월남문학의 유형·경계인의 몇 가지 가능성』, 『한국근대문학연구』 제31호, 한국근대학회, 2015, 7-38면.

11) 『카인의 후예』는 1953년 9월부터 『문예』에 연재되었으나, 잡지의 폐간으로 5회까지 연재 중 중단되었다가 1954년 12월 중앙문화사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12) 『월남전후』는 1956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문학예술』지에 연재되었다가 1957년 9월 여원사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2. 상실의 감각과 추방당하는 자의 문법

인간의 이동은 다양한 형식을 갖지만, 체제와 불화한 개인이 생활공간을 떠나 자신의 삶의 근거지를 버린다는 것은 돌아올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해방 직후 남북한이 38선을 축으로 이념 공간으로 획정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38선 이북을 떠나 38선 이남으로 향하는 월남은 그래서 단순히 지리적 이동이라는 의미에 국한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지리적 이동을 이른바 사상적 전향이라는 측면에서 좌익의 이념 공간에서 우익의 이념 공간으로의 전환 정도로 일갈한다면, 다시 말해 북조선에서 남조선으로의 이동을 이념을 잣대로 하여 의미화¹³⁾하는 것은 개인들의 행위와 그 속에 내재된 욕망을 단순화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동을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하는 것 또한—비록 그것이 실제에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일반화의 위험을 내포한다. 따라서 보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자들의 이동이 어떠한 조건들 속에서 이루어졌는가에 있다.

근대 이후 개인과 집단의 이동은 근대 세계 체제의 구축, 그리고 그와 연동한 사회 구조의 변동 과정 속에서 복잡하게 분기했다. 그럼에도 그 이동은 대체로 성장과 발전의 패러다임 속에서 의미화되었고, 주체의 자발적 선택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이동의 형식 중 떠남은 나고 자란 고향을 등지는 것이든, 하나의 집단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든, 상실의 감각을 동반한다. 비록 한 개인과 집단이 자신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자율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동안의

13) 이와 관련해 이해령은 해방 이후 38선을 넘는 행위가 미소에 의한 냉전의 현실화와 함께 정치적 표현이자 선택으로 간주되었던 상황 속에서 당시 사상통제와 검열의 문법을 형성한 양상을 세밀하게 밝히면서 월남이 하나의 신원증명이자 장소 확정에 대한 동의의 실천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이해령, 『사상지리(ideological geography)의 형성으로서의 냉전과 검열: 해방기 염상섭의 이동과 문학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34집, 상허학회, 2012, 133-172면.

생활공간을 떠나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상실감을 자아내는 것이었다. 해방 이후 월남서사에서 서사화된 이동의 형식은 이념 공간의 구축 과정 속에서 대체로 돌아갈 수 없는 자들의 고향 상실의 감각을 추동한다. 물론 이때 고향은 단순히 자신이 나고 자란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의 시원의 공간으로서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기억의 장소, 신체화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장소애(topophilia)의 대상이기도 하였다.¹⁴⁾ 따라서 월남서사에서 상실의 감각은 장소애의 대상으로서 자기 자신과 밀착된 곳을 빼앗기는 고통과 자연스럽게 결부된다.

일반적으로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 서사는 북조선 토지개혁에 의해 숙청당할 위기에 놓인 지주 계급의 월남 이야기로 쉽게 읽힌다. 해방되기 2년 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귀향하여 야학을 운영하던 박훈은 해방 직후 북조선 사회 구조의 변동, 특히 토지개혁을 중심으로 한 경제 체제의 전환 과정 속에서 지주 계급으로서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 “훈은 소위 토지개혁이란걸 앞둔 요지음 뜻 않았던 때, 뜻 않았던 곳에서 느끼곤 하는 어떤 강박감이 어제오늘에 와서는 어떤 구체성을 띠워 가지고 신변 가까이 닥쳐왔음을 느꼈다.”¹⁵⁾ 그런데 귀향 후 3년 동안 운영하던 야학을 당공작대원에게 접수당하고, 자신을 도와 함께 야학을 운영했던 청년들에 의해 농민위원장이었던 남이 아버지가 살해된 뒤 그 배후자로 의심받는 등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던 상황 속에서도 박훈은 고향을 떠나지 않는다. 그는 특별히 농토에 대한 애착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왜 그런지 지금 당장은 떠 날수가 없는 심정”¹⁶⁾으로 당에 의해 숙청되어 내 쫓기기 전까지는 고향에 남아 있고자 한다.

14) 장소애(topophilia)는 물리적 환경과 인간 사이의 정서적 관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고향, 기억의 장소, 삶의 터전에 대한 인간의 애착적인 장소 감각을 의미한다. Yi-Fu Tuan, *Topophilia: A study of Environmental Perception, Attitudes, and Value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0, pp. 92-93.

15) 黃順元, 『카인의 後裔』, 中央文化社, 1954, 10면.

16) 위의 책, 84면.

1946년 3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 의해 공포된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에 대해 “歷史的 및 經濟的 必要性에依하여 實施된 土地改革은 朝鮮에있어서 日本人統治의 滅亡의인 殘滓를 掃蕩하고 勤勞農民인 數百萬大衆의 生活을 根本的으로 改造하며 生産力發展途上의 障礙物인 封建農奴的關係를 除去하는 方向으로 志向되었다. 또 農村經理를 急速히 向上시키며 人民의 物質的形便을 改善하며 國家의 모-든經濟를 發展시키기에 不可避한 諸條件이 創造되었다.”¹⁷⁾라고 의미 부여하였다. 토지개혁은 반제·반봉건을 기치로 내걸면서 농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생산력을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선전되었다. 지주소작제 철폐를 지향한 토지개혁은 해방 이후 단행된 북한의 어떤 개혁 조치보다 반제·반봉건의 성격을 강하게 띠었는데, 이를 통해 친일파와 지주층의 물적 기반을 허물어버릴 수 있었다.¹⁸⁾ 특히, 토지개혁의 과정에서 지주 계급은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의 산물로서 일소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토지개혁의 단행이 다가오면서 박훈은 고향을 떠나 월남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토지개혁에서는 당 주도로 농민대회를 개최해 반동지주를 호명하고 농민들의 직접 비판 및 판결이라는 ‘인민재판’ 형식을 취해 지주 계급을 숙청할 것을 결의한 뒤 재산을 몰수하는 방식을 진행했다. 그러한 과정에는 인간 본성에 내재한 폭력성을 증폭시키는 권력의 형태와 사회적 조건들, 그리고 그로 인해 희생당하는 개인의 삶이 가로놓여 있었다.¹⁹⁾ 박훈 또한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오작녀가 박훈과 부부관계에 있다고 항변하자 재산을 몰수당할 위기를 벗어나게 된

17) 北朝鮮勞動黨中央本部, 『北朝鮮 土地改革의 歷史的 意義와 그 첫 成果』, 勞動黨出版社, 1947, 2-3면.

18) 김재웅, 『북한 체제의 기원—인민 위의 계급, 계급 위의 국가』, 역사비평사, 2018, 220면.

19) 신아현, 『황순원 소설에 나타난 희생양 메커니즘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69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7, 234면.

다. 하지만 당의 입장에서 박훈은 ‘혁명’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자이자 무지한 청년들을 유혹해 반동 결사를 조직하여 농민위원장의 살해를 사주한 자로, 숙청의 대상일 뿐이었다. 계속해서 숙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생명에의 위협을 느낀 박훈은 사촌동생이 친구의 도움으로 월남을 감행하고자 하자 그와 함께 고향을 떠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떠남은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숙청 과정에 따른 내몰림의 결과이다. 즉, 박훈은 고향에 정착해 살고자 하였지만 토지개혁이 단행되면서 지주 계급으로서 북조선 체제로부터 추방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카인의 후예』가 토지개혁에 따른 지주 계급의 숙청, 그리고 그에 의한 박훈의 월남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박훈은 지주 계급으로서 특별히 토지를 비롯한 재산에 대해 소유욕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아니었다. 그는 여타 지주 계급처럼 숙청당하기 전 재산을 빼돌리거나 농민과의 밀거래를 통해 토지가 몰수당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는다. 토지개혁 자체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점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자기 집안의 마름이었던 도섭 영감을 죽이고자 하는 부분에 있다. 박훈의 아버지 대에서부터 마름으로서 가산을 관리했던 도섭 영감은 해방 이후 ‘생존’을 위해 지주 계급의 숙청에 앞장서게 되고, 용제 영감이 숙청되어 죽은 뒤에도 박훈 일가에 강한 적의를 드러낸다. 이에 용제 영감의 아들인 박혁이 그를 죽이고 월남하려고 하자 박훈이 대신해 도섭 영감을 죽이려고 한다. 하지만 그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자신이 도섭 영감의 손에 죽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는지 반문하게 된다. 물론 박훈의 이러한 행위는 지주 계급에 대한 숙청에 앞장선 도섭 영감—자신의 안위를 위해 배반한 자, 북조선 체제의 잔학성을 상징적으로 보인 자—을 처단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월남의 알리바이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카인의 후예』의 서사는 박훈의 도섭 영감에 대한 처벌을 통해 토지개혁에 대한 저항을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지주 계급의 숙청 과정 속에서 박훈은 “난 이제 여기서 없어져야 할 사람이다, 없어져야 할 사람이다!”²⁰⁾라고 느끼거나, “지금 자기도 이 뒤숭숭한 세상 속에 들어 있는 것이다. 거기서 자기는 이제 알맹이 없는 죽정이 벼이삭마냥 타 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닥불 속의 죽정이처럼만 아름답게 타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²¹⁾ ‘없어져야 할 사람’, ‘알맹이 없는 쭈정’은 존재를 부정당한 자의 자기 인식이다. 그러니까 박훈은 지주 계급으로서 계급의식에 기초한 자기 인식이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로서의 자기를 부정하는 북조선 체제로부터 내몰린 자가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가 월남 직전 오작녀에게 “산 사람이 살았다고 할 수 없는 세상이지요”²²⁾라고 말하는 장면은 암시적이다. 자신의 삶을 부정당한 자에게 살아 있음은 성립 불가능한 것이다. 월남하기로 결심한 그가 선산을 찾아 자신의 돌 사진을 태워 없애면서 “이것으로 자기의 모습은 이 세상에 하나 남지 않는다고 생각”²³⁾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는 그가 북조선에서 자기를 지우는 것을 통해 월남 후 남한사회에서의 갱생의 가능성을 마련하는 제의(ritual)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자기 존재의 근거를 박탈당한 자의 자기 지우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카인의 후예』에서 추방당하는 자로서 박훈의 상실감의 근원은 지주 계급으로서의 토지를 비롯한 재산을 몰수당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그의 상실의 감각은 자기 존재를 부정당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가 끊임없이 유년기의 기억의 장소이자 모성성의 공간으로서 고향을 배회하는 것 또한 이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지주 계급으로서 숙청당해

20) 黃順元, 앞의 책, 316면.

21) 위의 책, 322면.

22) 위의 책, 301면.

23) 위의 책, 308면.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고향을 떠나지 않았던 것은 존재의 시원으로서 고향이 자기 확인의 장소였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사촌동생을 대신해 도섭 영감을 죽이고자 했던 것은 도섭 영감이 자신을 숙청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이 아니라, 유년의 기억 속 도섭 영감이 변화된 체제에 순응해 자기를 배반(부정)하는 잔학성을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장소로서 과거 유년기의 기억을 간직한 고향을 환기시키는 도섭 영감의 변모는 박훈에게 있어 장소 상실과 그에 결부된 존재의 부정을 일으킨다. 따라서 『카인의 후예』 서사는 체제 변동에 따른 장소 상실과 자기 상실의 위기에 처한 자의 월남서사로, 월남 이후 남한사회에서 자기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임옥인의 『월남전후』는 해방 이후 북조선에 진주한 소련군과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말살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월남한 여성의 이야기이라고 할 수 있다. 제국 일본의 패전 직전 참전하여 연합군의 일원이 된 소련군은 약소민족의 해방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대일 선전 포고를 감행했지만,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의 항복 선언 직후인 17일 함경도에 폭격을 가한다. 이는 명분상으로는 일본군 패잔병을 소탕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북조선의 조선인들에게는 전쟁의 참화로 다가온다. 『월남전후』의 내포 서술자 김영인에게도 이러한 소련군의 참전 및 폭격, 북조선으로의 진주는 “뻔뻔스럽게 전쟁윤리라는걸 행사”²⁴⁾하는 것으로 증오의 대상이 될 뿐이었다. 이 소설에서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으로서의 소련군에 대한 반감은 쉽게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러한 반감은 지식인 여성의 입장에서 그들을 미개한 종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자신의 책²⁵⁾을 몰수해간 소련군을 찾아가 되돌려받고자 한 김영인은 영어 서적

24) 林玉仁, 『越南前後』, 女苑社, 1957, 50면.

25) 『월남전후』에서 김영인의 ‘책’은 사별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출생 직후 병사한 조카 등과 함께 ‘집 모티프’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녀가 ‘자기’를 보존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장치들 중 하나이다. 이러한 것들의 상실이 김영인의 월남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을 ‘반동 서적’이라며 돌려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전부 소속 소련군이 톨스토이나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해서도 무지한 것에 놀란다. 그러면서 “영미진영에 가담해서 약소민족을 해방하겠다는 이들의 대의명분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²⁶⁾라고 토로한다. 물론 이는 한국전쟁 이후 반공 이데올로기의 문화적 확산 속에서 소련군을 적대시한 레토릭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월남전후』의 서사에서 소련군은 폭력과 약탈을 자행하는 야만과 미개의 종족으로 그려진다.

소련군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북조선 체제 변동의 주체로 새롭게 부상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인식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된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인물이 김영인의 사촌동생 을민이다. 과거 제국-식민지 체제가 항일운동에 가담한 것으로 짐작되는 이 인물은 해방 직후 해산진 치안대에 근무하면서 북조선에 반체제적인 사람을 무참하게 고문하고 살해한다. 자신의 폭력과 광기를 혁명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정당화하는 그의 면모는 곳곳에서 드러나는데, 토지개혁에 대해 친구 허옥이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자 그에 반발하면서 언쟁을 벌이다 그가 “북한에서는 병어리가 썰이야!”²⁷⁾라고 한탄하자 구타하거나, 학교에서 적기가를 부르는 것에 반감을 표한 김영인에게 “기독교나 자유주의자들이나 다 이 북한을 좀 먹는”²⁸⁾ 자들이라며 적대감을 드러내는 등 공산주의 사상에 경도되어 모든 것의 당의 지침에 의해 판단하고 행동하는 면모를 보여준다. 그러한 그를 보면서 김영인은 소련군과 마찬가지로 ‘야만’의 상태로 규정한다.

이처럼 이 소설에서 소련군과 그에 연대한 공산주의 세력은 대체로 폭력과 살육을 일삼는 야만의 상태로 제시된다. 그리고 북조선 또한 그러한 폭력과 야만의 공간으로 드러난다. 이는 제국-식민지 체제가 제국 일본에

는 정혜경, 『월남 여성작가 임옥인 소설의 집 모티프와 자유』, 『어문학』 제128집, 한국어문학회, 2015, 331면.

26) 林玉仁, 앞의 책, 164면.

27) 위의 책, 180면.

28) 위의 책, 205면.

의해 억압되었던 개인의 자유가 해방 이후 체제가 바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해방을 빙자해서 달겨든 사이비(似而非)자유나 해방을 오히려 역행하려는 이 알구진 세력”²⁹⁾들에 의해 점유된 북조선은 그런 점에서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는 곳으로, 상실감을 자아낸다. 김영인은 “해방이 됐다고는 하지마는 그와 정반대로 내 환경이나 개성이 마치 거미줄에 얽혀든 벌레처럼 앞도 뒤도 꼭 막혀진듯한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 생리에 맞지않는 사람들과 일상 접촉하고 그들의 비위까지 맞춰야 하다니…… 우울하기 짝이 없었다.”³⁰⁾ 답답함과 우울감을 가지고 있던 그녀는 스스로를 유폐되어 있는 자로 인식하면서 “감옥 속에서 자유세상이 그리운 죄수와도 같은 존재”³¹⁾로 자기를 주조한다. 폭력과 야만의 공간 속에서 개인의 자유가 말살되어 유폐된 자로서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그녀의 이러한 면모는 물론 월남의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 떠나야 할 곳으로서 북조선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드러낸 것이다.

그녀가 해방 직후부터 상경할 것을 중용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마을을 떠나지 않았던 것은 지식인 여성으로서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활동에 매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교육활동을 통해 점차 문맹이 퇴치되어가고, 그에 기초해 문화 균등을 이뤄 국가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당의 지침에 의해 자신이 원하는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가 억압 받는 상황 속에서 그녀는 월남을 감행하고자 한다. 물론 월남을 감행하는 과정 속에서 가족, 특히 어머니를 남겨두고 떠나는 것에 대한 회한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의 장소를 벗어나는 데 대한 고통이 수반되지만, 월남 이후 다시 가족을 데려올 수 있을 것이란 전망 속에

29) 위의 책, 109면.

30) 위의 책, 100면.

31) 위의 책, 139면.

서 그녀는 홀로 38선을 넘는다. 그녀가 38선을 넘은 뒤 “이것이 이남 하늘이라니……. 관념이 아니라 참말 조롱안에 간헐던 새가 푸른 창공을 후루루 날라가는 시원함을 나는 내 생리로써 체험했던 것이다. 나는 몇번이고 심호흡을 했다. 대기(大氣) 그 자체가 나를 온통 삼켜 주었으면 하고 내전신을 떠맡기는 심정이었다.”³²⁾라고 감격했던 것은 억압 속에서 통제되었던 개인의 자유를 회복한 데서 오는 희열감의 표출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따라서 『월남전후』에서 월남하는 여성에게 북조선은 체제 변동을 주도했던 소련군과 공산주의 세력으로 대표되는 폭력과 광기, 야만과 미개의 공간으로,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는 상실감을 자아낸다. 억압과 구속된 상태 속에서 나름의 신념에 기초해 교육활동을 전개하고자 했던 그녀에게 북조선은 공산주의라는 획일적 이념의 닫힌 공간으로 기능한다. 그리하여 해방과 함께 도래할 자유에의 희구가 좌절되고, 제국-식민지 체제가 못지않게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부르주아 지식인이라는 낙인 속에서 체제에 협력하지 않으면 내쫓길 위기에 처하게 된다. 물론 이는 남북한이 이념적으로 분할되어 있다는 점에서 남한=자유의 땅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월남의 방향성과 그 이유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월남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월남의 과정 못지않게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 즉 남한사회로 진입해야만 하는 이유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월남전후』의 서사는 폭력과 야만의 공간에서 자유를 빼앗긴 자가 끊임없이 자유를 갈망하는 상태를 서사화하는 것을 통해 상실의 감각을 증폭시키는 한편, 월남 행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와 임옥인의 『월남전후』의 서사는 해방 직후 북조선 체제 변동 과정 속에서 월남의 수행적 과정을 펼쳐 보이고 있다. 다만, 이들 소설에서 월남의 수행적 과정은

32) 위의 책, 215면.

월남의 과정 그 자체—지리적 이동이나 사상적 전향 등—를 구체적으로 서사화하는 것이 아니라, 월남이라는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그리고 그때 월남한 자는 변화된 체제에 순응하지 못하고 내몰린 자들로 숙청과 배제의 대상으로 낙인찍힌다. 그들은 존재 그 자체를 부정당하는 자들이자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로 폭력과 광기, 야만과 미개의 상태에서 공포와 절망, 상실감을 강하게 느낀다. 결국 그들이 월남을 감행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공포와 절망을 극복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실된 것들의 회복에의 염원을 수반한다. 배제된 자들로서 그들은 배제 그 자체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배제된 상태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을 통해, 또한 그러한 위치에서 끊임없이 상실감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 월남의 정당성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월남 이후 남한 체제에 입사(入社)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3. 남성 동성사회적 공간 재편과 토포포비아

월남서사에서 북한과 남한은 좌우익의 이념에 의해 양분된 공간으로서, 38선을 기준으로 경계 지어져 대립하고 있다. 해서 월남의 과정을 수행한다는 것은 좌익에서 우익으로, 엄밀한 개념이라고 할 수 없지만 사회주의에서 자유주의로,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의미했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남한사회에서 생산·유통된 월남서사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정치체의 질서와 문법을 내재화하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월남서사에서 북조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 공간으로 제시된다. 하지만 그러한 이념 공간이 인간 삶의 조건으로서 새로운 비전과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남조선(대한민국)의 이념을 잣대로 하여 부정당하거나 폐기되어야 할 적대 공간으로 드러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존의 월남서사에 관한 연

구 역시 이러한 공간 재편 과정에 주목해왔다. 즉, 서사 밖 냉전-분단 체제하 이념 공간의 재편 논리를 고스란히 서사에 회수하여 서사 추동의 원리로 제시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월남서사에서 해방 이후 남북한 공간의 재편 과정에는 이념뿐만 아니라, 젠더적 관점 또한 개입해 들어가 있었다. 즉, 좌우익의 이념 대립 못지않게 남성/여성의 위계화된 젠더 문법이 월남서사를 추동하는 하나의 원리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앞서 살펴본 상실의 감각과 결부되면서 남성성의 강화 및 여성성의 상실로 표면화되었다. 물론 남한이라고 해서 남성성이 약화되거나 여성성이 새롭게 발현될 수 있는 공간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었다. 일반화의 위험이 있지만, 해방에서 단정 수립, 한국전쟁에서 전후(戰後) 사회로 연쇄하면서 한반도는 좌우익의 이념 공간을 막론하고 남성 동성사회적 욕망(homo-social desire)이 분출되고 강화되는 남성성의 공간으로 재편되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³³⁾ 그럼에도 월남서사에서 북한은 여성성이 부인당하거나 약화되는 공간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그것은 남한 또한 그러한 공간적 질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망각한 채, 과잉된 남성성의 표출을 통해 폭력성이 점철된 공간으로서 북한을 주조하고, 그에 대한 공포를 강화하는 효과를 자아낸다.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에서 박훈의 고향, 나아가 그곳으로 대표되는 북조선이 공간적으로 여성의 공간으로 기능하거나, 공간적 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 ‘여성적인 것’이 그 중심에 놓인다고 단정하기는 물론 어렵다. 하지만 이 소설의 서사성을 구축하고 전개하는 데 월남의 과정을 수행하

33) 남한의 경우,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 한국사회에서 지배적 남성다움의 의미는 친미 반공 군부독재 세력이 주도하는 호전적 남성성이었는데, 군인다움과 용맹성을 주장하고 폭력적이었음에도 미국이 남한을 방기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철저히 대미 의존적 국가 안보정책을 펼쳤다. 그들이 남한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는 방식은 중 하나는 여성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정희진, 『편재(遍在)하는 남성성, 편재(偏在)하는 여성성』, 권김현영 외, 『남성성과 젠더』, 자음과모음, 2011, 25-26면.

는 주체로서 박훈에게 고향이 어떻게 젠더적으로 인식되고 감각되는가, 특히 그곳이 어떻게 여성성을 약화시키면서 동시에 남성성을 강화시키는 공간으로 드러나고 있는가는 주목을 요한다. 이와 관련해 당 주도로 토지 개혁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지주 계급을 숙청하기 위한 국가주의 권력이 폭력적으로 행사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담하거나 동원되는 농민들이 점차 광기에 사로잡혀 그러한 폭력을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해방 이후 체제 변동 과정 속에서 북조선이 남성적인 공간으로 재편되어갔던 정황을 짐작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박훈의 고향에 대한 공간 인식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인물이 박훈의 월남을 지연시키는 오작녀이다. 그녀는 지주 계급이었던 박훈 일가의 마름의 딸로서 3년 전부터 귀향한 박훈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를 돌보고 있는 여성이다. 아버지인 도섭 영감이 해방 이후 북조선 체제 변동 과정 속에서 과거 지주의 마름으로서 농민들을 핍박했던 위치에서 벗어나 지주 계급의 숙청에 앞장섰던 것과 달리 그녀는 박훈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그를 보살핀다. 그리하여 토지개혁의 일환으로 박훈의 재산이 몰수될 위기에 처하자 자신과 부부 관계를 맺었다는 거짓말을 통해 그를 보호하고자 한다. 그러면서도 숙청의 위기 속에서 박훈이 고향을 떠나 월남을 감행할 것을 예감하면서 그와 함께 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한편, 박훈의 월남 이후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고 있는 인물이다. 또한 오작녀는 신분제 사회에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바위가 된 여종에 관한 큰아기바윗골 전설을 떠올리면서 자신은 분에 넘치는 행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등 박훈에 대해 일정 부분 연모의 감정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오작녀는 박훈에게 어머니의 대리자로 위치한다. 당에 의해 야학이 접수당한 뒤 술에 취해 귀가하여 잠든 박훈은 꿈속에서 산길을 달린다 상처가 낫음에도 멈추지 않으면서 오작녀가 자신을 붙들어주기를 바란다. 그의 바람대로 꿈속에서 그녀가 박훈을 붙든 뒤 “오작녀는 훈의 얼

굴의 상채기를 빨기 시작했다. 목줄기의 상채기도 빨아 주었다. 손등이며 팔목의 상채기도 빨아 주었다. // 나중에는 혀로 핥기 시작했다. 이마며 어깨며 가슴이며 모조리 돌아가며 핥아 주는 것이었다. 부끄러웠다. … (중략)… 부끄러웠다. 그러면서도 행복스러웠다.”³⁴⁾ 꿈이 무의식적 욕망의 발현이라고 했을 때, 이 장면은 박훈이 오작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그는 오작녀를 성적 대상으로 위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안전과 안정을 가져다주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해서 꿈속에서 박훈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오작녀의 행위는 성적 행위가 아니라 마치 어머니가 새끼를 보살피는 것과 같은 돌봄의 행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카인의 후예』 서사 곳곳에서 박훈이 어머니를 떠올리는 것은 점차 신변의 위협이 강화되어가면서 불안감이 증폭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었던 유년기의 기억 속 어머니를 소환한다. 그에게 어머니는 “따뜻하고 아늑한 피난처”³⁵⁾였던 것이다. 토지개혁을 위시한 지주 계급에 대한 숙청 과정 속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박훈이 기댈 수 있는 곳은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 오작녀 뿐이다. 다가오는 숙청의 위기 속에서 공포를 느끼고 있던 그는 오로지 오작녀에 의탁해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오작녀는 존재를 부인당한 자가 자기를 의탁할 수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돌 사진을 찍을 때를 회상하면서 어머니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듯이—자기 근원이 송두리째 뿌리 뽑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원의 장소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는 유년기의 고향에 대한 기억과 연동하면서 박훈의 존립 근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박훈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내쫓겨 월남을 감행한다고 했을 때, 고향 나아가 북조선은 더 이상 어머니(=오작녀)의 땅이 아니다. 그

34) 黃順元, 앞의 책, 23면.

35) 위의 책, 167면.

곳은 북조선 체제 성립 과정에서 남성적인 폭력과 광기로 점철된 공간으로 박훈에게 상실감과 절망감을 자아낸다. 그때 상실과 절망의 감각은 모성성에 기초한 안정과 안전을 그에게 제공해주지 않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북조선이 남성적인 공간으로 재편·강화되어가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런 점에서 『카인의 후예』는 월남서사를 전개하는 것을 통해 좌익에서 우익으로의 사상적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기보다는 안전과 안정을 제공하는 어머니의 땅으로부터 축출당한 자의 비애의 정서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에게 상실의 감각은 지주 계급으로서의 경제적 위상이 박탈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시원으로서 어머니의 땅으로부터 추방당하는 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이 소설의 서사에서 해방 직후 체제 변동 과정 속에서 북조선의 공간성이 재편되는 양상이 명징하게 표출된 것은 아니지만, 서사의 전개를 통해 북조선이 강고한 남성성의 공간으로 재편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임옥인의 『월남전후』에는 남성 폭력의 공간으로 재편되고 있는 북조선의 실상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소설에서 북조선 함경북도의 시골마을은 소련군의 진주 및 공산당 세력의 득세 속에서 폐허와 야만의 공간으로 드러난다. 소련군은 민가를 습격하여 조선인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공산당 세력들 또한 그에 가담하여 폭력을 일삼는다. 이러한 양상은 내포 서술자인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중심주의적인 광기와 폭력으로 인식된다. 소련군이 탑승한 기차에서 여성의 시체가 발견되고, 소련군이 신랑과 신부가 탄 트럭을 강탈하여 신부를 빼앗아 간 사건을 전해 듣거나, 소련군들이 젊은 미인을 죄수처럼 묶어서 몰고 가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김영인은 분노와 함께 공포를 느낀다. 이처럼 이 소설에서 함경북도의 시골마을로 대표되는 북조선은 소련군과 그에 연대한 공산당 세력의 남성적 폭력이 자행되는 공간으로, 여성 주체에게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성적으로 대상화되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이는 북조선이 남성 동성사회적 공간으로 재편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하

게 장면에서 극대화된다. 이와 관련해 문화선전공작대 간부들이 치안대를 통해 “아름답고 젊은 여자”³⁶⁾를 요구하고, 그녀들을 소련군에게 제공하는 장면은 주목을 요한다. 과거 제국-식민지 체제가 면장을 했던 전과로 당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월남하지 못한 조선인 부부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³⁷⁾ 당 간부의 요구에 따라 여성을 섭외해 제공한다. 하지만 금품에 현혹되어 그에 응했던 여성은 소련군에게 성적 대상이 되는 것에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며 원통해한다. 이 에피소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문화선전공작대 간부들이 소련군에게 조선 여성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그들 사이의 암묵적인 연대성을 강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조선인 여성을 소련군의 성적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통해 남성 동성사회적 욕망을 강화하는 한편, 남성/여성의 젠더화된 이분법적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조선은 소련군과 공산당의 남성중심주의적 권력의 구축 및 행사를 위해 여성을 타자화하는 곳으로, 조선인 여성에게는 억압과 수난의 공간으로 인식되게 되는 것이다.

임옥인의 『월남전후』의 서사 곳곳에서 해방 직후 북조선에 거주하고 있던 여성들의 수난의 기록은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체제 변동 과정에서 여성성이 소거되거나 삭제되는 상황 역시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인물이 최순희이다. 그녀는 과거 김일성 직속 부하로 북만주 일대와 함경남도 산악지대에 잠복하면서 항일운동에 가담하였던 이력을 가지고 있는 ‘혁명동지’의 일원으로, 혜산진 소련사령부에서 근무하고 여군이다. 치안대에 근무하고 있던 사촌동생의 소개로 그녀를 만난 김영인은 최순희를 대하면서 “여성다운데라거나 부드럽다든가, 인정스럽다거나, 그러한 인상은 받을 수가 없었다. 하나의 기계와 같이 느껴졌다.”³⁸⁾ 여군인 최순희는 여성동맹회원들을 소집하여 강연하면

36) 林玉仁, 앞의 책, 91면.

37) 위의 책, 91면.

서 독립과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투쟁해왔다면서 근로대중을 위한 정권을 수립해야 된다고 역설한다. 그러면서 그녀는 여성들의 화장이나 의복을 지적하면서 “유두면(油頭粉面)에 비단을 휘감구 흐늘거”³⁹⁾리는 존재로 규정한다. 이는 소위 혁명 달성을 위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성적인 것을 폄훼하여 소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으로, 혁명의 주체를 남성으로 위치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 소설에서 최순희는 여성성을 소거한 자, 남성화된 여성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것으로 김영인에게 인식된다. 그녀는 “사내들처럼 손끝으로 턱을 쓸며 너털 웃음을 웃”⁴⁰⁾는다던가, “사내들마냥 다리를 틀고 앉”아 “수염이라도 있는 듯이 턱을 쓸어보이는 것이었다.”⁴¹⁾ 최순희의 행위를 남성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김영인 또한 남성/여성의 젠더적 성 역할을 전제로 한 이분법적인 성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프롤레타리아 계급의식에 기초하여 혁명을 완수하고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는 주체는 남성=군인이라는 점에서 북조선은 여성성이 상실되고 남성성이 강화되는 공간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공간 질서의 재편이 여성 주체로서 김영인에게 반감을 자아냈던 것이다. 『월남전후』 서사에서 김영인의 여성적인 면모는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한편으로 그것은 소련군과 공산주의자들 사이의 남성 동성사회적 욕망의 강화 속에서 여성이 성적 대상에 놓이게 되는 데에 대한 공포 속에서,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혁명 주체로서 여성의 탈성화(脫性化)를 강제하는 상황 속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박탈과 함께 여성성의 상실로 귀결된다.

『월남전후』에서 김영인이 월남을 감행하고자 한 것은 개인의 자유에

38) 위의 책, 96면.

39) 위의 책, 95면.

40) 위의 책, 97면.

41) 위의 책, 105면.

대한 억압이 표면적인 이유로 제시되어 있지만, 무지와 야만, 폭력과 광기는 모두 소련군과 공산주의 세력의 남성중심주의적 권력의 작동에 따른 것이다. 김영인이 가난과 무지와 암흑 속에 놓여 있던 조선인 여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문맹퇴치의 일환으로 교육 활동에 매진하고 그로 인해 월남을 유예한다고 했을 때 있을 때, 그녀는 여성들을 보살피는 자로 자기를 위치시킨다. 즉, 여성성에 기초하여 자신의 사회적 위상을 구축해나갔던 셈이다. 하지만 남성적인 폭력이 그러한 그녀의 활동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한편, 그녀로 하여금 당이 요구하는 활동을 수행할 것을 강제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는 것이 아닌 여성성의 상실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임옥인의 『월남전후』의 서사는 북조선 체제 변동 과정 속에서 여성의 수난이 지속되고, 남성중심주의적 권력에 의해 여성성이 상실될 위기에 처한 여성 주체의 월남 이야기로 읽을 수 있다. 그때 북조선은 남성/여성의 이분법적 젠더적 위계화 속에서 남성화된 공간으로 재조직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와 임옥인의 『월남전후』의 서사에서 남북한은 좌우익의 이념적으로 분할된 공간으로 제시될 뿐만 아니라, 남성/여성의 젠더적으로도 위계화된 공간으로 드러난다. 특히 북조선은 해방 직후 체제 변동 과정 속에서 소련군과 공산주의 세력의 남성중심주의적 권력이 강하게 발현되는 공간으로서 체제 변동을 추동하고 혁명을 완수해야 하는 주체로서 남성을 상징하는 한편, 여성은 그러한 남성의 대상으로 타자화된다. 또한, 남성중심주의적 권력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가운데 소련군과 공산주의 세력 간 남성 동성사회적 욕망이 강화되고, 여성은 성적 대상으로 위치지어진다. 동시에 혁명에 저해 요소가 된다고 판단되는 여성성은 소거되거나 폐기되어야 할 것으로, 여성성의 탈성화 역시 강제되는 공간으로 드러난다. 그런 점에서 북조선은 월남 주체에게 폭력과 야만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토포포비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추방당한 자에게는 장소 상실을 낳았던 것이다.

4. 월남의 수행성과 반공서사의 이데올로기

이 글에서 해방 직후 남북한 이념 공간의 재편 과정에서 월남한 자의 행위와 욕망, 그리고 그것들을 추동한 이동의 조건과 문법에 주목하여 살펴본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와 임옥인의 『월남전후』는 한국전쟁 이후 월남이라는 행위가 반공의 핵심적인 지표가 되면서 소위 반공서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단독정부 수립과 한국전쟁을 거쳐 오면서 반공국가로서 갱신해갔던 남한사회에서 38선 이남으로 월남했던 자들의 행위는 '자유 대한의 품'으로 기꺼이 자기를 투신한 것이며, 그것은 생존의 위협 속에서 추방당한 자가 상실의 고통을 회복하는 과정과 겹쳤다. 그리고 그때 남한사회, 이승만 정권은 이념적 우월성과 정치적 정당성에 기초하여 월남한 자들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포용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선정을 베푸는 구원자로서 위치하게 되었다. 『카인의 후예』와 『월남전후』 서사에는 월남한 자의 이동의 종착지, 다시 말해 월남의 완결지로서 남한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결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상실, 추방, 폭력을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는 유토피아와 같은 곳으로 상상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황순원과 임옥인의 작품이 해방 직후 월남한 작가의 체험을 기초로 하여 씌어진 자기 서사였다는 점에서 그것이 남한사회에 입사하여 안착하기 위한 '자기의 테크놀로지'의 일환으로 수행된 글쓰기의 산물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황순원은 1946년 5월 평양에서 월남하였는데, 조선문학가동맹 기관지였던 『문학』에 『아버지』와 『황소들』을 게재한 전력⁴²⁾이 있어 사상적으로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임옥인 또한 1946년 4월 한탄강을 넘어 단신으로 월남하였는데, 사촌동생이 치안대장의 이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 또한 공산당 말단

42) 조은정, 「1949년의 황순원, 전향과 『기러기』 재독」, 『국제어문』 제66집, 국제어문학회, 2015, 40면.

조직에 가담한 것⁴³⁾으로 오해 받아 사상적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기실 남한사회에서 월남작가는 남한에 거주하지만 남한의 원주민과 변별 되는 월남민이라는 배타적 정체성이 각인되어 있는 ‘재남(조선) 이북인’⁴⁴⁾으로서 월남 이전 북조선 체제하 문학 활동이 사상적 검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월남의 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데서 나아가 사상적 전환, 즉 전향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이와 관련해 황순원이 1949년 12월 3일 『서울신문』 지상에 “본인은 해방 후 혼란기에 문학가동맹에 가입하였으나 본의 아님으로 탈퇴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서함. 11월 30일”이라고 전향성명서를 발표하고, 보도연맹에 자진 가입함으로써 ‘전향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상징적이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고 안정적인 문학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자기검열 속에서 국민-됨의 자격을 획득해나갔던 것이다.⁴⁵⁾ 이는 같은 시기 임옥인이 “全國文筆家協會文學部와 韓國 青年文學家協會를 中心으로 其他一般 無所屬作家와 轉向文學人을 包含한 全文壇文學人의 總結束下에 大韓民國을 代表하는唯一한 文學團體로서 『韓國文學家協會』”⁴⁶⁾ 결성에 가담하거나 “우익진영 여성 단체의 활동을 보도하는 신문”⁴⁷⁾인 『부인신보』 창간에 편집차장으로 참여하였다가 『부인경향』 편집장을 거쳐 미국공보원 번역관으로 옮겨가는 등 월남 이후 자신의 신원을 지속적으로 증명하면서 국민-됨의 자격을 획득해간 과정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즉, 황순원과 임옥인의 월남서사가 반공서사로

43) 林玉仁, 『나의 이력서』, 正宇社, 1985, 86-88면.

44) 전소영, 『월남 작가의 정체성, 그 존재태로서의 전유-황순원의 해방기 및 전시기 소설 일고찰』, 『한국근대문학연구』 제32호, 한국근대문학회, 2015, 84면.

45) 이에 대해서는 조은정, 『해방 이후(1945~1950) ‘전향과 냉전 국민의 형성’-전향성명서와 문화인의 전향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185-202면 참조.

46) 『韓國文學家協會 結成式』, 『京鄉新聞』, 1949. 12. 14.

47) 林玉仁, 『나의 이력서』, 앞의 책, 97면.

자리매김해가는 과정 속에는 월남작가로서 그들의 사상적 전환, 즉 전향 또는 그에 준하는 통과제이의 과정을 수행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들은 반공국가로 일신해갔던 남한사회의 체제와 질서에 의해 배제되지 않고 포섭되기 위해 다양한 문학 활동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그들의 자기 서사가 월남서사로 제시되면서 신원을 증명하는 자기의 테크놀로지로 작동했던 것이다.

한편, 월남서사가 반공서사로 전화되는 과정 속에는 이와 같은 월남작가의 행위를 남한사회의 체제와 질서가 승인하는 양상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문학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이 개입해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두 작품이 자유문학상 수상작이었다는 점이다. 『카인의 후예』는 1954년 제2회, 『월남전후』는 1956년 제4회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는데, 그것은 아시아재단이 반공적 가치 발굴과 아시아적 확산이라는 취지에 아래 제정한 자유문학상의 방향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수상작들이 그러하지만, 이 두 작품 역시 해방 이후 좌우익의 이념 갈등 및 한국전쟁을 소재로 하여 자유·휴머니즘의 가치를 선양하여 반공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체제)의 우월성을 보증했던 것으로, 자유문학상이 한국 전후문학의 주류였던 반공문학을 진작시켰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⁴⁸⁾

“『아시아財團은 動亂이쉬지않는 아시아에 대하여 美國의民間的인 一大關心과協助로서 自由를選擇하는 아시아的進路에 物·心兩面으로 寄與하고있다. …(중략)… 아시아가 오랫동안 內部에 가지고 있는 潛在한 根源과그價値가 自由人民의 노력에 依한 人類의인見地에서 暢達되고 開花되기 위하여……』⁴⁹⁾ 제2회 자유문학상 수상작 발표 즈음 기자가 전하고 있는 자유문학상 제정 취지에서도 반공주의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의 현창

48) 이봉범, 『냉전과 원조, 원조시대 냉전문화 구축의 역동성』, 『한국학연구』 제39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261쪽.

49) 『文學復興과 再建協助』, 『東亞日報』, 1954. 2. 4.

은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이는 1950년 11월에 발표된 아시아재단의 전신인 자유아시아위원회의 초기 목표로부터 그 시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시아 각국의 반공주의 세력의 육성 및 지원이 핵심이었다.⁵⁰⁾ 또한, 한국 전쟁기 자유아시아위원회가 특별히 관심을 보였던 사업은 한국인들의 공산 침략 경험을 담은 수기나 예술작품을 영어나 아시아권의 언어로 번역하여 세계에 수출하는 것이었다. 1954년 가을 아시아재단으로 개편 이후 반공 선전에서 자유주의 문화예술 진흥으로 사업의 목적을 전환하였지만, 자유문학상은 월남 및 반공 문화인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것이다.⁵¹⁾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와 임옥인의 『월남전후』가 자유문학상을 수상한 과정에는 이처럼 아시아재단의 지원이 1950년대 한국문학을 재편하는 데 개입해 들어온 양상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전후 한국사회에서 월남서사가 반공서사로 자리매김했던 데에는 세 가지 층위의 구조가 중첩되어 있었다. 먼저 월남서사 내 월남 주체의 수행적 과정이 해방 이후 좌우익의 이념 공간으로 양분된 남북한의 공간 질서 속 북에서 남으로의 이동하는 것이 야만과 억압의 상태에서 문명과 자유의 상태로의 전환, 상실에서 회복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확보하게 했다. 그리고 그러한 월남서사가 월남작가의 자기 서사로서 고백의 진정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남한 사회에 입사하기 위한 사상적 전환의 과정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효과를 자아냈다. 또한 아시아재단의 자유문학상 제정 및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문학 제도적으로 남한사회와 문화인들에게 반공과 자유의 이념을 확산하는 효과를 발휘했던 것이다. 따라서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와 임옥인의 『월남전후』는 한 개인의 월남의 과정이 서

50) 이상준, 『아시아재단의 영화프로젝트와 1950년대 아시아의 문화냉전』, 『한국학연구』 제48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8, 54면.

51) 이에 대해서는 최진석, 『문화냉전기구의 형성과 변동 연구-한국 지식인의 문화적 자율성 모색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57-168면 참조.

사회되어 월남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해방 직후의 정치경제적 조건들이 어떻게 가로놓여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 이념 공간의 분할 및 획정의 내러티브적 기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京郷新聞』 『東亞日報』

林玉仁, 『越南前後』, 女苑社, 1957.

林玉仁, 『나의 이력서』, 正宇社, 1985.

北朝鮮勞動黨中央本部, 『北朝鮮 土地改革의 歷史的 意義와 그 첫 成果』, 勞動黨出版
社, 1947.

黃順元, 『카인의 後裔』, 中央文化社, 1954.

2. 단행본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김재웅, 『북한 체제의 기원—인민 위의 계급, 계급 위의 국가』, 역사비평사, 2018.

정희진, 『편재(遍在)하는 남성성, 편재(偏在)하는 남성성』, 권김현영 외, 『남성성과 젠
더』, 자음과모음, 2011.

Yi-Fu Tuan, *Topophilia: A study of Environmental Perception, Attitudes, and Value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0.

3. 논문

김종욱, 『희생의 순수성과 복수의 담론—황순원의 〈카인의 후예〉—』, 『현대소설연구』
제1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3, 267-291면.

김주리, 『월경(越境)과 반경(半徑)-임옥인의 〈월남전후〉에 대하여』, 『한국근대문학연
구』 제31호, 한국근대문학회, 2015, 91-119면.

노승욱, 『황순원 소설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의 지형도(地形圖)』, 『한국근대문학연구』
제31호, 한국근대문학회, 2015, 121-158면.

서세림, 『월남문학의 유형·경계인의 몇 가지 가능성』, 『한국근대문학연구』 제31호,
한국근대문학회, 2015, 7-38면.

신아현, 『황순원 소설에 나타난 희생양 메커니즘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69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7, 217-239면.

우찬제, 『황순원 소설에 나타난 뿌리의 심연과 접목의 수사학』, 『문학과환경』 제14권
제2호, 문학과환경학회, 2015, 125-142면.

이봉범, 『냉전과 원조, 원조시대 냉전문화 구축의 역동성』, 『한국학연구』 제39집, 인
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221-276면.

- 이상준, 『아시아재단의 영화프로젝트와 1950년대 아시아의 문화냉전』, 『한국학연구』 제48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8, 49-84면.
- 이재용, 『국가권력의 폭력성에 포획당한 윤리적 주체의 횡단 -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론-』, 『어문론집』 제58집, 중앙어문학회, 2014, 301-324면.
- 이혜령, 『사상지리(ideological geography)의 형성으로서의 냉전과 검열: 해방기 염상섭의 이동과 문학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34집, 상허학회, 2012, 133-172면.
- 전소영, 『해방 이후 '월남 작가'의 존재 방식: 1945~1953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44집, 한국현대문학회, 2014, 383-419면.
- 전소영, 『월남 작가의 정체성, 그 존재태로서의 전유-황순원의 해방기 및 전시기 소설 일고찰』, 『한국근대문학연구』 제32호, 한국근대문학회, 2015, 81-105면.
- 정주아, 『"정치적 난민"의 공간 감각, 월남작가와 월경의 체험』, 『한국근대문학연구』 제31호, 한국근대문학회, 2015, 39-63면.
- 정혜경, 『월남 여성작가 임옥인 소설의 집 모티프와 자유』, 『어문학』 제128집, 한국어문학회, 2015, 309-336면.
- 조은정, 『1949년의 황순원, 전향과 『기러기』 재독』, 『국제어문』 제66집, 국제어문학회, 2015, 37-67면.
- 조은정, 『해방 이후(1945~1950) '전향'과 '냉전 국민'의 형성-전향성명서와 문화인의 전향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최진석, 『문화냉전기구의 형성과 변동 연구, 1954~1968-한국 지식인의 문화적 자율성 모색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한경희, 『임옥인 소설에 나타나는 월남 체험의 서사화와 사랑의 문제』, 『춘원연구학보』 제7호, 춘원연구학회, 2014, 263-291면.

<Abstract>

Cold War-Division System and Grammar of Movement
in Narratives of Defecting from North Korea
—Focusing on Hwang Sun-won’s *Descendant of Cain*
and Lim, Ok-in’s *Before and after defect from North Korea*

Oh, Tae-Young

In this article I discussed the process of movement in narratives of defecting from North Korea and recognition of space as conditions of such process. The narratives of defecting from North Korea allows us to confirm how those who moved from north to south prove their existence in the process of reorganization of ideological space divided into North and South Korea. And identify one aspect of the governance of the division system that intervened therein. In this article, following the self-narratives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they identified the meanings of the conditions and grammar of the movements they built. And also identified the beginning of the bond with the Cold War-anti-communication ideology under the division system. In the process of defecting from North Korea, the 38th parallel north is located as a place of loss and ruin, and is also constructed as a space for male homo-social desire that maximizes the violence of male gender. As such, it is revealed as a space of topophobia, where the North Korean refugees are rooted and driven out of the ground of their existence. At the same time, it is presented as a dystopia that drives the imagination of sub-38th parallel as an ideal place for exiles to escape, to heal the pain of loss and to restore freedom. Hwang Sun-won’s *Descendant of Cain* and Lim, Ok-in’s *Before and after defect from North Korea* helped to grasp the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In addition, the narrative origins of the division and delimitation of ideological spaces of the two Koreas can be identified.

Key words: cold war-division system, narratives of defecting from North Korea, space reorganization, movement, loss, anti-communication ideology

투 고 일 : 2020년 2월 15일

심 사 일 : 2020년 2월 18일-3월 5일

게재확정일 : 2020년 3월 11일

수정마감일 : 2020년 3월 26일